

불교음악 봄무대 다채롭다

대구BBS - 신춘 음악회, 국립국악관현악단 - '부모은중송' 여불련 · 오느름 - 자선음악회, 동화사 - 봉축산사음악회

진각종 '혜초' 지방공연도

각별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불교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다채롭게 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준비되고 있는 음악회들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자리 혹은 특별한 기념의 성격을 담고 있어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구불교방송이 마련하는 신춘음악회가 4월 5일 오후 2시 대구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테너 김진원, 바리톤 이영구, 소프라노 정동희, 정성급 성악가 10여명과 대구불교방송, 동화사, 제주부루나 합창단의 하모니로 새봄의 불심을 돋우는 무대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1시간 분량의

국악교성곡 '부모은중송'을 제15회 정기연주회 악곡으로 정했다. 4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국립중앙극장에서 열리는 이 음악회는 가사를 쓴 광덕스님(2월 27일 입적)을 추모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이 음악회는 6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한 14개 합창단의 700여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반주는 중앙관현악단이 맡게 된다. 정선대할머니를 위한 영가천도무도 공연된다.

도 의미 있는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 딸기 봉선화로 피어나소서'를 주제로 하는 자선음악회다. 정선대할머니의 고통을 나누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이 음악회는 6월 14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불교연합합창단을 비롯한 14개 합창단의 700여명이 무대에 설 예정이다. 반주는 중앙관현악단이 맡게 된다. 정선대할머니를 위한 영가천도무도 공연된다.

불교국악관현악단 오느름(대표 김희경)은 도신스님과 손을 잡고 결식아동과 실직자를 돕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연다. 6월 중순 울산 KBS홀을 시작으로 9월에는 대전에서 두 번째 무대를 가질 계획. 이 공연에서는 도신



◇ 올 상반기 불교음악회가 풍성하게 준비되고 있다. 사진은 국립국악관현악단이 4월 30일 공연한 '부모은중송'의 초연(98년 5월) 장면.

스님의 대표곡인 '무상' '엄마' 등 불교 가곡과 국악가요를 들을 수 있으며 도신스님의 신곡도 서너곡 발표할 계획이다. 국악인 김성녀씨와 재즈피아니스트 임동창씨의 즉흥무대도 기획되고 있으며 젊은 국악인 최진숙씨가 찬조출연 한다. 아직 일정과 악곡들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차분히 준비되는 연주회도 있다.

대구 팔공산 동화사는 5월에 봉축산사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월 27일 을 불교음악회의 서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교성곡 '혜초'도 두 차례쯤 더 공연된다. 진각종은 '혜초'의 지방공연을 5월과 9월쯤에 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 찬불가 보급운동으로 일생 수행을 대신해 온 문문스님의 고취를 기념하는 대형무대도 올 중반기에 마련될 전망이다. 강남 불은사도 올 봄 중에 대형 음악회를 연다는 방침이며 합창단과 사할 측이 의견을 활발히 나누고 있어 기대된다.

임연태 기자(ytlim@buddhopia.com)

불교가곡 음반낸 김경녀씨

"음성포교 좋아서 해요"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최근 불교가곡 음반 '부르고 싶은 노래'를 내는 등 음악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김경녀(42)씨.



그는 "불교음악은 아직 재정립하고 개척해야 할 분야가 많은 장르"라며 "천수경을 현대음악이나 전통음악을 통해 새롭게 악곡화 하고 싶다"는 또 다른 원력을 밝혔다.

김씨는 82년 청도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불교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 86년에는 성악가 수법스님을 도와 불교성악동호인회를 창립하는 등 음악을 통한 포교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왔다. 계명대 성악과에 다니던 중 불교학생회 '중도반'에 가입한 것이 인연이 되어 불교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김씨는 현재 대구경북불교음악인협회 이사과 청도 영화미술합창단 지휘자, 대구 서봉사합창단 지휘자를 맡고 있다. 지난 1월 성도절 법요식에서 대구사원주지연합회는 불교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 온 김씨에게 공로상을 전하기도 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향훈스님 시화전 '빈마음의 노래'

31일까지 광주 카페갤러리

한 걸음 쉬어가고 두 걸음 쉬어가네
양상한 빈가지 소리내어 울고
맑은 바람 맑은 물은
태초의 소식 전하는데
빈 몸 끌어안고 다시 길을 걷는다.
허허당 향훈스님이 '빈 마음의 노래'를 주제로 시화전을 연다. 20일부터 31일까지 광주 카페갤러리에서 열리는 시화전은 85년에 이어 두 번째. 스님의 전시회 이력으로는 아홉 번째다.



회 "간결한 언어와 그림으로 전하는 화엄세계의 소식"이란 평을 듣고 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를 마치고 내년 5월 스위스에서 열릴 초대전 준비를 위해 토일에 집거할 계획이다.

올 1월 영천의 토굴에 화재가 발생해 작업해 둔 작품들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해 버리는 '허허로운' 고통을 겪어 낸 스님의 시

화제의 전시

육명심 사진전 '하늘아래 첫 땅...'

26일까지 서울 덕원미술관

"신(神)을 올바르게 섬기고자 한다면 자신이 신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원로 사진작가 육명심(66)씨는 지난 3년간 티베트 곳곳을 다니며 티베트인들이 품어내는 삶의 내음을 알알이 렌즈에 담았다.



불교와 토속신앙, 그리고 여타의 종교들을 통해 인간의 원형을 천착해 온 육씨는 "티베트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조차 생명력의 원형질은 다를 것이 없다"는 숭고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깨달음의 결정들을 가지고 가려서 전시회를 갖는다.

17일 서울 인사동 덕원미술관에서 문을 연 육씨의 '하늘아래 첫 땅 티베트' 사진전은 26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예술대학 사진학과 교수직의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임연태 기자

간다라미술 진품 볼 기회

7월1일부터 예술의전당서 130여점 전시

'부처님 고행상'을 비롯한 간다라미술의 진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미술전시 전문 기획사 파나코(대표 손학봉)는 파키스탄 정부와 문화관광부의 협조로 7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간다라불교미술대전을 연다. 지난해 4월 네오나르도 다빈치전을 주관했던 파나코측은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불교미술품은 130여 점이며 모두 진품을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파키스탄의 불교미술품 진본이 우리 나라에서 대량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 간다라미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가 7월과 9월에 열린다. 사진은 A.D 2~3세기에 제작된 '부처님 고행상'으로 현재 파키스탄 라호르박물관에 소장됐다. 이번 전시에 진품이 소개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KBS가 공동 주최하는 이 전시회에 소개되는 미술품들은 파키스탄 정부의 협조로 무상임대 받아 한국에 오게된다. 전시품은 모두 간다라불교미술의 진수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불상과 불전도(佛傳圖), 불두(佛頭)는 물론 공예품들도 다수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에서는 불교의 전통의식 영산재와 승무동 공연도 기획되고 있다. 종단협의회 관계자는 "간다라미술품을 국내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은 소중한 기회"라며 "이 전시를 통해 불자들의 신심이 증진되고 불교예술의 안목이 확대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종단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3만여 명의 관람권을 판매할 계획이다. 9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시립박물관에서도 전시된다.

간다라불교미술이란 서기 2세기에서 3세기를 거치며 파키스탄 북부와 아프가니스탄 동부지역에서 활발히 창출된 미술들을 말한다. 서양의 고전적인 전통에서 기술이나 예술적인 특성들을 받

아들인 간다라 미술은 우리나라의 석굴암에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할 정도로 불교미술의 대표적 유파를 이뤘다. 임연태 기자

문화 단신

부처님 일대기 주제 전시회

부처님 일대기를 주제로 한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올 정기 회원전의 주제를 부처님 일대기로 정했다.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회원전에는 30여 회원들이 회화, 조각 등의 분야에서 각자 자신이 해석하는 부처님 일대기의 장면들을 작품화해 선보일 계획이다.

박서보씨 드로잉-페인팅展

대구에서 활동중인 서양화가 박서보씨가 '드로잉과 페인팅'전을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대구 '시공'과 '신라' 두 미술관에서 동시에 열고 있다. 70년대부터 독자적인 묘법(描法)을 개척해 온 박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묵타를 두드리는 구도자의 심정"으로 그린 드로잉 작품 등 80여 점을 내 놓았다.

전북불교문인회 문집 발간

전북불교문인회는 13일 전북불교회관 4층 시민선방에서 문집 '다르마' 출판기념회와 정기총회를 열었다.

두 번째로 묶은 문집 '다르마'에는 해관스님(불교문학도교원장)의 초대시와 회원들의 시 수필 단편소설 등이 실렸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봉구 시인이 회장에 선출됐다.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음



봉성기획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법명: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선, 1973 부산 법어사 동명대 대학원 석사학위, 1975~76 동도사/종신사 강원 대교과수, 1977 동국대 석좌학원 원장, 현재 대종사 법학박사로서 수학, 1977~86 서울 성북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장수사/소림사/화엄사 주지, 평택 원정암 주지, 부산 금강구 생활 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 읽으면 누구나 쉽게 깨를 뺐을 수 있습니다.

▶ 6가지 깨는 법, 쌀로 깨는 법, 백미/지리/깨는 법, 비벼들고 깨는 법, 동전으로 깨는 법, 생활속의 숫자(이피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치료 등)로 깨는 법, 일년, 년, 월, 시로 깨는 법
▶ 14가지 형목별 과음의 예, 투지, 투지, 2개월간 우유음료 노력의 의미, 식용 우유가 좋다, 시골/벽은 다시 재능이 있어 애민을 잊고 있는 송재, 장교, 기술문제를 연구하고 7년 동안 장신수업이 꼭 필요한 시골이다, 부흥산에서 타인, 온갖인 일만 하고 하루도 지치지 않던 3개월간 침요연 출은 재력이 아무런 것도, 시골 새시장은 6개월 만에 시작하는 것도, 소자본으로 재벌 무렵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리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각 12,000원

10,000명의 실천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침쟁이 뺏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